

‘성’을 가공한 출판상품, 과연 팔리나

스테디셀러로 자리 굳힌 책도 ... 대부분 초판은 소화할 정도

아이들 사이에 ‘따조’라는 이름의 작고 둥근 딱지형태의 놀잇감이 선풍적인 인기다. 과자도 아니고 과자봉지 속에 덩으로 들어 있는 놀잇감인 ‘따조’의 영향력은 막강해서 아이들이 과자의 맛과 품질이 아니라 ‘따조’가 있는지 없는지로 과자를 사고 말고를 결정할 정도라고 한다.

‘성(性)’은 어른들의 ‘따조’다. 어떤 상품이든지 ‘성’이나 ‘성적 이미지’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섹시한 제목, 섹시한 내용, 그것도 아니면 섹시한 듯한 분위기라도 풍겨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상황은 출판계라고 예외가 아니다. 전에 없이 다양한 요리법으로 각기 다른 관심과 층위의 독자를 겨냥, ‘성’을 가공한 ‘출판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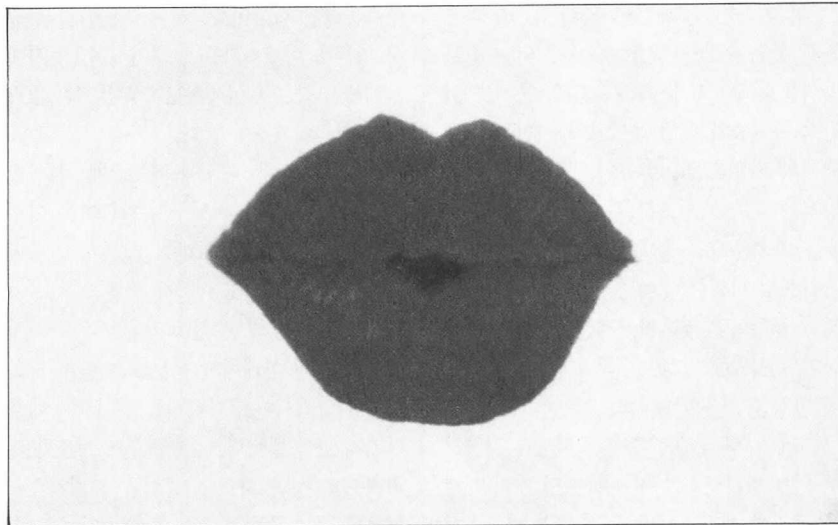
‘성’의 상업적 효과 노린 책도

비록 번역서가 주종을 이루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성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서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종래에는 여성지에 검은 띠로 눈을 가린 사진과 함께 은밀한 분위기를 풍기며 ‘체험 실화’쯤으로 실렸을 법한 여성들의 섹스 체험기도 서점에서 단행본으로 만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해오던 ‘성’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실천하고 외치는 사람들의 쇼킹한 삶이 ‘선구적인 것’으로 호기심과 부러움을 사고, 신세대들이 개방적인 성행태를 가림없이 그린 소설들도 평단의 부추김 속에 독자들의 관심을 끈다. 성애의 테크닉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들도 러시를 이룬다.

이에 대해 한 출판인은 “오랜 불황에 지친 출판인들이 인간의 시들지 않는 관심이자 욕망인 ‘성’이 가진 상업적 효과에 주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성’은 과연 출판물에서도 그 놀라운 유인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몇몇 사례를 통해 보면 분명 그렇다.

학술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출판 상황에서 본격적인 성문제 연구서와는 성격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에두아르트 폭스의 《꿈속의 역사》(까치)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굳힌 고전으로 꿈을 만하다. 1988년 초판 발행 후 지난해까지 18판을 찍었다.



전4권으로 3만질 정도가 팔렸다는 게 출판사의 자체 집계다.

본격적인 성연구서로는 《섹스북》(박영률출판사)이 출간 1년만에 3만을 넘어섰는데, 대학생들의 세미나 교재, 생일 선물용으로 많이 팔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연구서 분야에서의 ‘성’은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동문선 신성대 사장은 “연구하고 공부하기보다는 호기심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서의 경우 들춰보다가 까다로우니까 직접 구매로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동문선의 경우 《카마수트라》가 초판을 다 소화했을 정도다.

‘성’이 안고 있는 상업적 효과에 보다 많이 기대고 있는 것은 비소설류들. 지난해부터 특히 강세를 보인 것은 대담한 처녀, 야한 아줌마들의 체험적 섹스문들이다.

주부 양은영씨가 PC통신에 연재했던 것을 단행본으로 묶은 《아줌마는 야하면 안되나요》(다솔), 《야한 아줌마가 남편을 기살린데》(시아)는 대표적인 경우다. 얼마전만 해도 단행본으로 만들기에는 멍처거렸을 만큼 숨김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두 권 다 3만부는 무난히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솔 출판사의 관계자는 책 출간 이후 독자들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말하고 독자들의 반응이 유난히 뜨거운 책이 ‘성’관련서라고 전한다. 때문에 서점 판매대에 1년 남짓 진열된 책이라면 대부분 기본(3만부)은 나갔을 거라는 추측이다.

다양한 층위의 독자를 겨냥한 ‘성’ 가공 ‘출판상품’들이 쏟아졌다. 현재 성관련서들이 덩으로 얻는 상업적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다. 독자들의 관심을 따라가기에 급급하기보다 더욱 본격 전문화한 기획과 연구가 오히려 지속적인 상업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견해다.

출판사 스스로 “비수기를 넘기기 위한 전략적 기획”이라고 밝힌 《러브호텔 핑크, 두 번은 짧게 한번은 길게》(금문서관)는 한 미용사가 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는 우리 시대의 성풍속도인데 5월에 출간 1달만에 초판 5천부가 팔렸다.

‘기본은 팔린다’

“폭발적으로 많이 나가기보다는 꾸준히 팔린다”는 서점 직원들의 말처럼 섹스 지침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도 만만찮다. 별다른 특징을 찾기 힘든 고만고만한 책들이 서가가 비좁을 만큼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분야에 쏠린 출판사와 독자들의 관심을 잘 반영하다.

“소설을 할 능력이 없어서 이 분야를 시

작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전문출판사가 됐다”고 고백하는 한 출판인은, 책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지침서들은 하루 주문량이 약 200부 정도는 될 것이라고 귀띔한다. 주로 남성독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서점의 성지침서 코너에서 독자들의 손길을 자주 타는 책은 《함께 배우는 성》(다섯수레) 《섹스공부하기》(편안런북스) 등이다.

성관련서를 한권이라도 내 본 출판인들은 한결같이, 책 출간 이후 독자들의 문의 전화와 격려 혹은 비난 전화가 쇄도하는 것이 이 분야 책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독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예다. ‘성’이 들어가면 기본은 된다(아무리 못해도 초판은 소화할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성립된다.

현재 성 관련서들이 덩으로 얻고 있는 상업적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다. 언제까지 독자들이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센세이셔널리즘과 폭로, 고백, 현실성없는 테크닉의 소개, 술안주거리에나 어울림직한 야담에 만족할 리 없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수준과 관심을 따라가기에 급급하기보다는 그것을 이끌 수 있는 깊이 있는 기획과 연구야말로 이 분야 책이 지속적인 상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박남정 기자

표지

김정일 작 《꿈속의 고뇌》

지난 6월1일부터 11일까지 ‘예술의 전당’ 자료관 앞마당에서 열린 ‘MBC 구상조각전’ (MBC 및 한국구상조각회 주최)이 열렸다. 출품된 작품 가운데 원광대 조소과 4년에 재학중인 김정일씨의 작품 《꿈속의 고뇌》를 담았다.